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아나톨리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 마태오 제 3주일
- 성 끼로스와 성 요한 자선치료자(이장)
- 제 2조, 조과복음 3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2조 부활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자선치료자 찬양송 / 85, B 178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로마서 5:1~10 / 봉독서 133
- 복음경 : 마태오 6:22~33 / 109, B 3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아나톨리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이단은 항상 교회의 큰 재앙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항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순간에도" 받아들여졌고, 믿어졌던 것을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불순물들은 교회의 큰 위협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 이단으로 믿음의 일치가 깨지고, 신앙의 신조에서 고백하는 "하나인,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의 일치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일치를 거룩한 교부들이 이단들에게 맞서서 투쟁하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7월3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아나톨리오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458)도 한 분이셨습니다. 성 사도 바울로께서는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1고린토 1: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문신에 대한 교회의 입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를 지지하면서 자신의 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표현이 문신입니다.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문신을 하는 주된 이유는 아름다움, 유행,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 또는 문신을 한 음악, 연극, 패션,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그들의 우상을 모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는 문신 가게에서 HIV(AIDS) 및 C형 간염의 감염과 사용하는 염료에 의한 심각한 피부 문제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혈액은행에서는 12개월 이전에 문신한 사람들의 혈액 기증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FDA는 문신한 사람이 MRI 검사를 받아야할 경우 문신이 부어 오거나 피부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색소에 존재하는 금속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로는 <<누구나 나는 누구나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I고린토6:12)“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 것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는 성전”(I고린토6:19)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몸은 신성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몸을 해칠 권한이 없습니다. 문신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몸을 사람이 마음대로 다르게 만들기 위한 인간의 개입입니다. 여기서 의문은, 문신을 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사회적 프로필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자극하고 이기심만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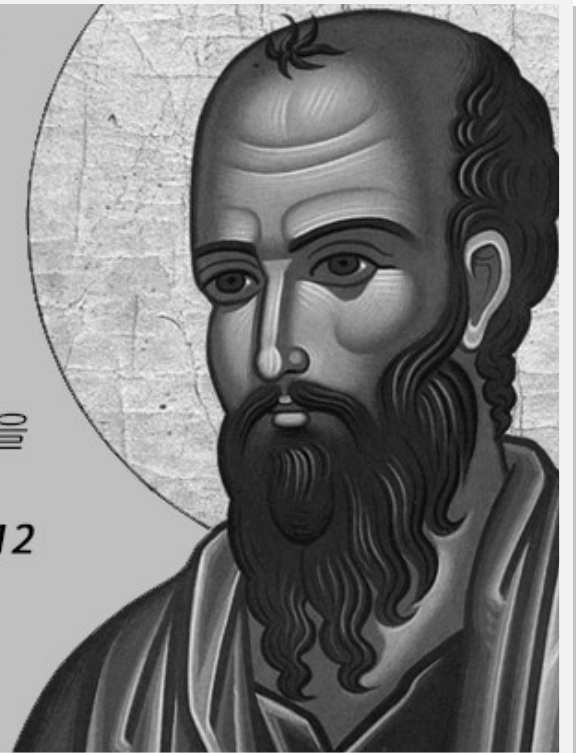
하느님께서서는 신자들에게 “너희 몸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지도 말라. 나는 주이다.”(레위기19:28)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세기에, 제 7차 세계공의회에서는 이교도의 관습에 따라 혹은 야만인의 생활에 따라 그리스도 신자들이 몸에 묘사했던 어떠한 상징도 비난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 위에 지워지지 않는 어떤 상징이나, 이름을 새기지 말고,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필립비2:9),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깁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사도행전4:12)

나는 누구나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1 고린토 6:12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 거룩한 사도들: 향기의 원천

옛날 페르시아의 한 우화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하루는 어떤 여행자가 무덥고 타는듯한 사막의 모래밭을 걷다가 그곳을 벗어나 쉴 곳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향기가 나는 곳을 찾다보니 놀랍게도 작은 진흙에서 그 향기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너는 고작 진흙덩이잖아. 말해다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놀라운 향기를 얻었는지. 그건 장미향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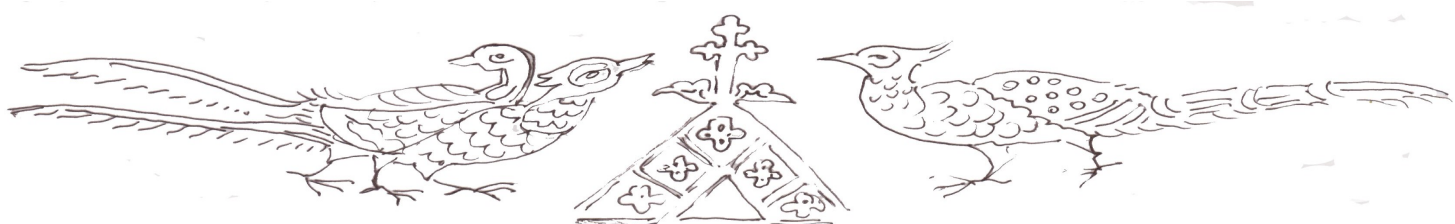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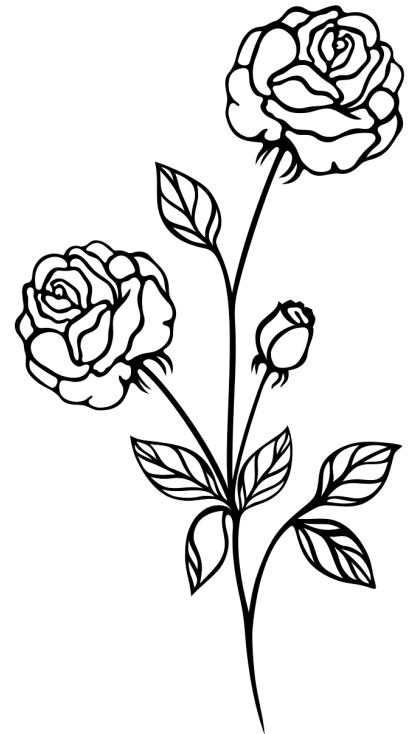
“당신 말이 맞습니다.” 진흙덩어리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한 덩어리 흔해 빠진 진흙덩어리일 뿐이에요. 볼만한 건 아무 것도 없죠.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제까지 장미꽃 아래에서 지내왔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닌 아름다움의 비결이다. 곧, ‘샤론의 장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아가서 2:1)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매력이 없거나, 지루하고 따분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빛을 환하게 밝히기 때문이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4세기) 성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의 강’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사도 바울로는 성령을 통해 ‘신부의 정원’(곧,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의 강과 같으며, 신부(교회)의 작은 시냇물들은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긴다. 그리고 비슷한 다른 강들은 사도 요한, 루가, 마태오, 마르코처럼 교회의 정원에 있는 고귀한 나무들과 다른 모든 사도들이며, 이들 모두는 빛을 발하는 바람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순례하여 향기의 원천이 되었고 계속해서 복음의 향기를 내뿜고 있다.”

아타나시아



# 주보소식

##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 6월 29일(월)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성 바울로 사도의 중보로 다니엘 신부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인 분들이 영적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축일 축하합니다.

## 대교구

### ➡ 여름수련회.

올해 여름수련회는 아쉽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각 지역성당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지속적인 친교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일학교 모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 ➡ 성서공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서 베드로 1서에 대한 성서공부를 온라인 실시간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이 아니라도 성서공부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

### ➡ 서울 성당 장년회와 신데즈모스 봉사.

지난 6월20일 토요일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장년회와 신데즈모스 회원들이 수도원을 방문하여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주차장에 자갈을 더 깔면서 정비를 해주었고, 수도원 외부의 잡초를 제거하였고, 연못을 청소해주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주신 모든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간예식



6월 29일(월)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축일

6월 30일(화) 12사도 연관 축일

7월 1일(수)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